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벼룩시장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벼룩시장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벼룩시장

완성된 이름

벼룩시장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벼룩시장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온갖 중고품을 팔고 사는 만물 시장.

요약 연대표

표기

벼룩시장

20세기	현재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온갖 중고품을 팔고 사는 만물 시장.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벼룩시장'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온갖 중고품을 팔고 사는 만물 시장.



벼룩시장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벼룩시장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벼룩시장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벼룩시장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벼룩시장



벼룩시장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옛 표기와 변화

‘벼룩시장’은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벼룩시장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벼룩시장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벼룩시장

 출처 1978 조선일보 6월 1일 5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프랑스 파리에는 벼룩시장이란 것이 있고 미국에는 스왑밋이란 것이 있어 대개 주말마다 장
이 선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86 매일경제 5월 31일 10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어머니 회원들은 부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 입는 옷을 수집, 손질한 후 벼룩시장에서 2백
~5백 원 정도에 판매한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그밖에도 8도 특산물과 향토 음식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터와 헌 물건을 팔고 사는 벼룩시장, 각종 농기계와 원양어업 장비 등을 볼 수 있는 전시장도 마련되어 대중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벼룩시장의 보충 설명

‘벼룩시장’은 프랑스어 ‘marché aux puces’ 또는 영어 ‘flea market’을 번역한 말이다. 프랑스어 ‘marché aux puces’와 ‘flea market’을 모두 곤충인 벼룩을 뜻하는 단어와 시장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원래의 뜻 그대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벼룩시장’이라고 한 것이다. 벼룩시장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중고품을 매매하는 노천 시장 형태로 프랑스에서 등장하였다. 미국에서는 ‘flea market’이라고도 하지만 물물 교환 모임을 뜻하는 ‘swap meet’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flea market’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지만 프랑스어 ‘marché aux puces’를 번역한 말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어에서 생긴 말이 다른 언어로 번역 차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하필 벼룩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갔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어원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고품들에 벼룩이 많아서 이런 명칭이 생겼다고 보는 어원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1970년대에 벼룩시장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의 신문 기사에서부터 ‘벼룩시장’이 등장하는데, 주로 외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에 등장한다. 즉, 외국에 있는 중고품 시장을 소개하면서 ‘벼룩시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열리는 유사한 시장에 대해서도 ‘벼룩시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플리마트(Flea Mart=벼룩시장)’, ‘플리마켓’, ‘프리마켓’, ‘프리마켓’처럼 원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한 예들도 보이고, ‘벼룩장터’라고 하여 ‘시장’ 대신 ‘장터’를 번역어에 사용한 용례도 보인다.

벼룩시장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무림 2020 《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벼룩시장의 뜻과 역사